

광촉매 시장경쟁 본격화 전망

솔라텍 · 나논 · 현대종합상사 공급 ... 2005년 1조원 시장 형성

최근 광촉매가 실내외 장식재와 벽지 등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VOCs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며 취급업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광촉매는 빛을 받으면 화학반응(산화·환원)을 일으켜 유해한 물질들을 무해한 물질로 변화시키는 친환경적인 소재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으로 오염된 실내외 공기의 정화, 향균, 냄새제거, 오염방지 등의 기능을 한다.

국내 처음으로 광촉매를 시공한 바 있는 솔라텍(대표 윤성수)은 광촉매 제조방법 특허를 획득하고 자체적으로 코팅액을 제조·생산하고 있다.

1999년 특허를 획득한 이래 국회 어린이집과 김포공항, 현대건설 기술연구소, 중소기업은행 본사 등 국내 최대 시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2년 상반기에는 4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연간 100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나논(대표 황이춘)은 대덕의 벤처기업인 이앤비코리아가 개발해 최근 특허를 획득한 광촉매를 독점공급하며 8월 본격 영업에 나섰다.

자체 개발보다는 국내보다 일찍 시장이 열린 일본의 광촉매 제품을 수입해 국내에 공급하는 회사도 늘어나고 있다.

현대종합상사의 화학사업부는 일본의 웰코트에서 광촉매를 수입해 2002년 하반기부터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건대부속병원 일부와 고속도로 매표소 등을 시공했다.

이밖에 나노크린이 일본 광촉매 제품을 수입해 국내에 공급하고 있으며, 광촉매를 응용한 기능성 조화를 판매하는 씨미트코리아 등도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2005년 국내 광촉매 시장이 1조원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삼성경제연구소는 21세기 10대 산업으로 선정해 시장이 크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 Chemical Daily News 2002/11/20 >